고창군, 국내 최대 천일염전 생태체험학습장 추진

심원면 염전부지 아름다운 일몰 경관·천일염생산 현장 관광자원 개발

2024년 '갯벌세계유산센터' 건설…염전농가 지속적인 생산활동 보장

고창군이 국내 최대 천일염전을 명품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한다. 아름다운 경관과 천일염을 생산하는 삶의 현장을 친환경 관광 및 체험학습장으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다.

고창군은 심원면 고전리 염전부지(65만평)에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 체험학습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1단계로 오는 2024년까지 '갯벌세계유산센터'를 건설한다. 2단계는 염생식물원, 자연생태원, 소금 관련 6차 산업화 단지를 조성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생태공원과 생물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전북도와 공동 용역사업을 진행했고 지난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 이 사업을 반영했다.

고창군은 이 사업을 통해 고창갯벌을 보호하는 완충구역으로, 지속가능한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생태계 보전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한 해 600만명이 찾는 순천만국가정원의 경우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인 순천만습지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도심 확장도 막는 완충지대로서 성공을 거뒀다.

고창군은 염전의 근대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테마형 생태관광 전략도 추진한다.

염전에 자리한 각종 소금창고를 비롯한 건축물은 염부들의 삶의 터전이자 근대에서 현재까지 이어진 산업시설로서의 가치가 높다. 염전 폐업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겨 생계 곤란을 겪는 염전농가의 지속적인 생산활동 보장 등도 고려됐다.

고창군은 이 곳을 세계자연유산 등재 예정지인 고창갯벌과의 동선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갯벌세계유산센터' 건립을 위한 최적지로 꼽고 있다.

고창군은 1차로 350억원의 자체 예산을 활용해 일부를 매입하고 2021년 190억원, 2022년 160억원 예산 확보 후 전체 부지 매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염전은 자연과 삶이 어우러진 생명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면서 "생태문화관광 자원이 결합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생물권 체험학습벨트 조감도

해남 땅끝가족어울림센터

연말 착공…2022년 1월 개관

해남군이 출산과 양육 정책의 핵심기능을 담당할 땅끝가족어울림센터〈조감도〉를 연말 착공한다.

30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생활SOC 복합화 시설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땅끝가족어울림센터 신축추진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해남맘카페 회원,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에서는 현재까지 설계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땅끝가족어울림센터는 가족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장난감도서관, 동네부엌, 동네카페 등을 갖춘 다목적 복합시설이다.

해남읍 구교리 옛 공공도서관 부지에 들어설 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약 4200㎡ 규모로 건립된다. 2022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오는 10월 설계 최종보고회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착공할 예정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공설추모공원 조성 부지

순창군, 9월 25일까지 공모

순창군이 공설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의 공개모집에 나섰다.

순창군은 관내 지역을 대상으로 공설추모공원 조성부지 공모를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공설추모공원은 순창군이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장사시설 수요에 부응하고,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앞서 순창군은 올해 초 '순창군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기존 공동묘지 재개발 방안을 우선 검토해 최근 순창읍 신촌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주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번 공개 모집에 나섰다.

신청 부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거 안정, 부지면적, 개발 용이 등 총 10개 항목별 심사와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이르면 내년 국가공모사업으로 신청, 진행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공설추모공원 조성지역 마을에 시설사용료 감면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일자리 우선 고용,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등 인센티브와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지는 3만5000㎡ 이상 부지이며, 공고일 현재 신청부지 인근 마을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기증 트랙터로 재배한 첫 수확물 복지시설에 기증

여수에서 정읍으로 귀농

김민진·임세환씨 부부

아로니아·두릅 등 전달

여수에서 정읍으로 귀농한 청년농부 부부가 첫 농사로 수확한 농산물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훈훈한 미소를 짓게 하고 있다.

30일 정읍시에 따르면 귀농 청년농부 김민진·임세환씨 부부가 지난 26일 지역 내 장애인과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재배해 수확한 농산물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지난 5월 동양물산기업㈜ 주관의 '귀농 청년농부 트랙터 지원사업'에 선정된 김씨 부부가 기증받은 트랙터를 활용해 재배한 농산물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눈 것이다.

김씨 부부는 무상으로 지원받은 트랙터를 활용해 처음으로 수확한 아로니아 열매(100㎏)와 여름두릅(50㎏) 등 15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지역 내 복지시설인 '나눔빌'과 '은혜의집' 등에 기증했다.

김씨 부부는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저희 부부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러 사람에게 맛있고 건강한 행복을 전하는 정읍농부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여수에서 정읍시 소성면으로 귀농했다. 현재 카카오채널 구독자 2만명, 블로그 1일 구독자 6000~1만명, 인스타그램·페이스북·밴드·카페 등 각종 SNS 계정을 활발하게 운영하면서 많은 소비자·농업인들과 소통하고 있는 열정 넘치는 청년농부 부부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나눔을 실천해준 부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활력 넘치는 정읍농촌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는 귀농 청년농부가 되어 달라"고 격려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여수에서 정읍으로 귀농한 청년농부 부부가 첫 수확한 농산물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양항 제2석화부두 건설 착수

여수광양항만공사 471억 투입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공사를 지난 27일 착수했다.〈조검도〉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은 총사업비 471억원을 들여 돌핀식 1만t급 2선석을 기존 석유화학부두 양측면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공사가 사업비를 분담(정부 30%, 공사 70%)해 추진한다.

제2석유화학부두가 오는 2022년 말 완공되면 석유화학부두 및 중흥부두의 심각한 체선율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여수산단 공장 증설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도 원활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공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김선종 공사 운영본부장은 "현재 운영 중인 부두 인근에서 시행되는 공사인 만큼 안전관리를 철저히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